

2024년 05월 30일 (목) - Signal evening

만든 날짜: 2024-05-30 오후 4:16

수정한 날짜: 2024-05-30 오후 4:24



시그널리포트
investment intelligence

시그널리포트는 인공지능으로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증시 분석 서비스이며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구독자 본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 공유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시그널리포트의 내용은 주식의 매도, 매수 등을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매매는 본인의 판단으로 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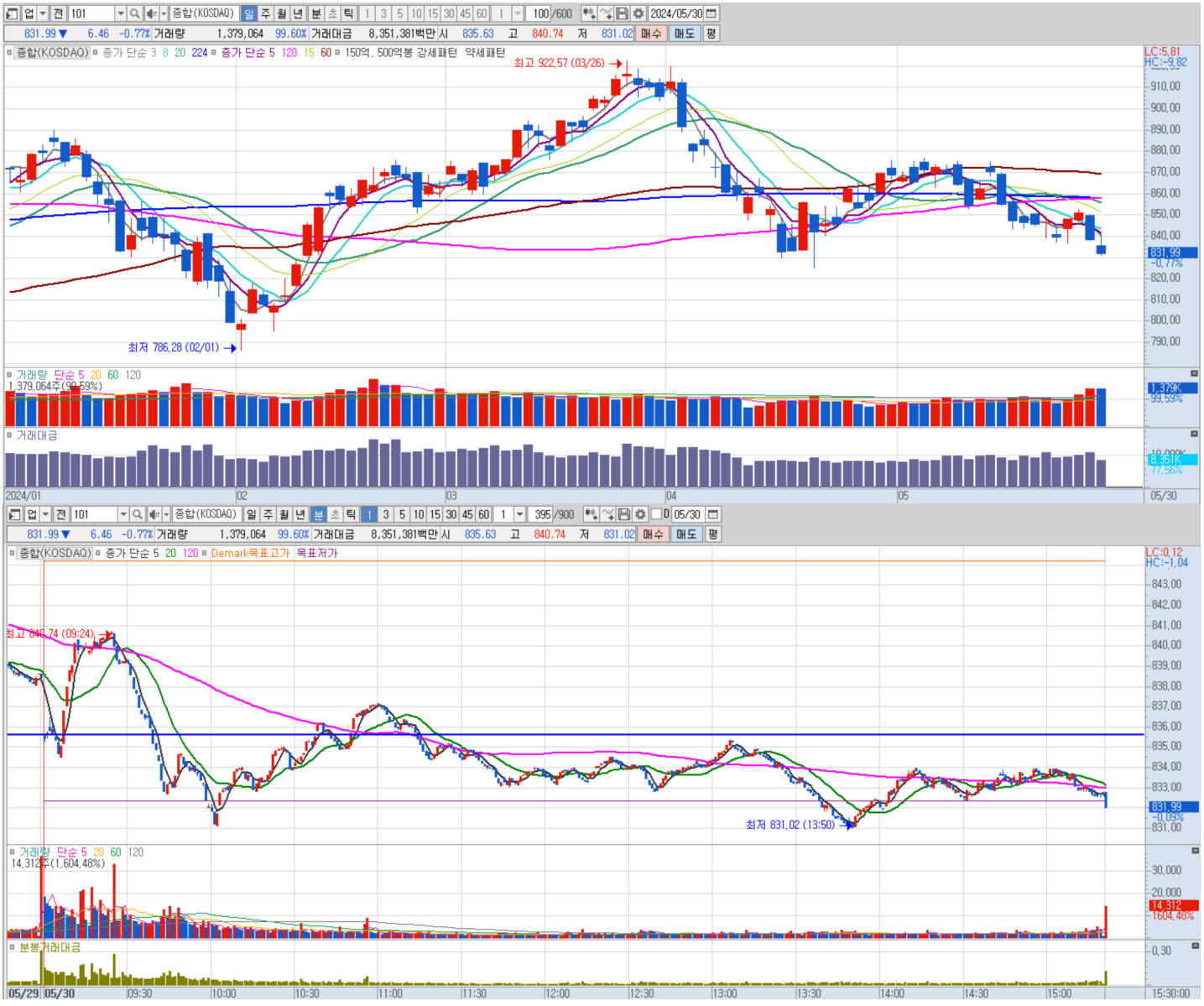
당일 새벽 제공된 'Signal Report'에서 시장에 강하게 부각된 요소를 복습하는 콘텐츠입니다. 매일 장 마감 후 저녁에 제공됩니다.

2024년 05월 30일 (목) - Signal evening

▶코스피 지수 2635.44 (-1.56%)



▶코스닥 지수 831.99 (-0.77%)



[05월 30일 (목) 시장 주도 종목 - to the DEEP]

< 미용 / 화장품 >

●선진뷰티사이언스 (+15.23%)(3239K)

[\(24.05.24\)클릭 e종목"선진뷰티사이언스, 선크림 시장 확대 수혜"](#)

선진뷰티사이언스는 1988년 설립한 화장품 소재 전문업체다. 고객사는 샤넬, 로레알, LVMH와 같은 프레스티지 업체부터 중국 로컬브랜드, 한국, 미국 인디브랜드까지 다양한 업체가 있다. 21개국에 26개 해외 대리점을 통해 영업망을 구축했다. "올해 7월부터 미국에서는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을 시행한다"며 "주요 내용은 화장품 제조 시설은 FDA 등록을 필수로 규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성분에 대한 정보도 제출해야 한다"며 "제조설비와 원료에 대해서 FDA의 허가를 받은 선진뷰티사이언스가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아모레G (+7.40%)(786K) / 한국화장품제조 (+10.66%)(1362K) / 코스메카코리아 (+10.66%)(871K), 잉글우드랩 (+6.33%)(705K)

[화장품주 주가 장중 강세,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 증가 소식에 투심 개선](#)

중소기업벤처부가 28일 발표한 '2024년도 1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화장품 수출은 1년 전보다 30.1% 증가한 15억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10대 수출 품목 가운데 최고 판매액이다.드라마, 영화, 유튜브 등 한국 콘텐츠 인기가 지속되면서 덩달아 한국 화장품 매출도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원익 (+8.67%)(9120K)

[원익, 화장품 자회사 부각...52주 신고가](#)

원익은 지난해말 현재 씨엠에스랩 지분 92%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최근 다이소가 화장품 채널로 부상하면서 에이블씨엔씨, 토니모리와 함께 다이소에 입점한 씨엠에스랩도 관심을 받게 됐다. 씨엠에스랩은 더마블록 브랜드 제품을 다이소 전 지점에 출시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씨엠에스랩은 지난 9일 다이소를 통해 신규 브랜드 '더마블록'을 런칭하는 등 신제품 5종을 출시했다고 공식 밝혔다.

< 바이오 / 의료시 >

●제이엘케이 (+19.99%)(4128K)

[수익성 개선 시급한 제이엘케이, '미국 510K' 도전 첫발](#)

제이엘케이는 이달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자체 AI 솔루션 'JLK-LVO'의 인허가 신청을 완료하고 미국 시장의 본격적인 진출을 예고했다. 제이엘케이의 JLK-LVO는 혈관조영 CT 이미지를 통해 대혈관 폐색(Large Vessel Occlusion, LVO)을 신속하게 검출하는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이다. AI 솔루션의 510k 문턱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럼에도 국내 시장에서의 인허가 성과 대비 '수익성'이 두드러지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미국의 LVO 검출용 AI 솔루션 시장의 문턱만 넘어서면 국내완 규모가 다른 보험수가를 기대할 수 있다.

●강스템바이오텍 (+19.41%)(6390K)

[강스템바이오텍, 바이오 USA 참가...파트너링 미팅 통한 기술이전 협의](#)

바이오 USA에서 강스템바이오텍은 20여개의 다국적 제약사와 파트너링 미팅이 예정돼 있다. 이 가운데 스페인의 피부과 전문 제약사, 프랑스 메이저 제약사, 글로벌 대형 제약사 등에서 아토피 줄기세포 치료제 '퓨어시스템-에이디주'의 국내 임상3상 후 미국, 유럽에서의 임상시험 절차에 대한 논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다수의 유럽 빅파마와 국내 제약사와도 무릎 골관절염의 통증완화 및 연골재생, 염증 감소 반응 등 구조개선 결과를 중심으로 미팅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규 파이프라인인 오가노이드도 미팅대열에 합류한다.

●퀀타매트릭스 (+15.22%)(826K)

[퀀타매트릭스 "패혈증 균 잡는 항생제 바로 알려줘"](#)

퀀타매트릭스가 항균제 감수성 검사 의료기기인 디라스트(dRAST) 수출 확대에 본격 나선다. 50여 종의 항생제 중 패혈증 환자에게 맞는 약을 5~7시간 안에 알려주는 제품이다. 여기에 더해 애초에 핏속에 균이 있는지 없는지, 그 균이 무엇인지까지 알려주는 '원스톱' 의료기기도 3년 내 선보일 계획이다. 권성훈 퀀타매트릭스 대표(사진)는 최근 "작년 4분기에만 유럽에서 디라스트를 공급하기로 한 병원이 30여 곳 추가됐다"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디라스트 허가를 받기 위한 현지 임상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퓨처캠 (+7.87%)(1196K)

[\(24.05.16\)환자가 인정한 퓨처캠, '전립선암 치료제'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ADC(항체약물 접합체) 다음 트렌드로 방사성의약품을 꼽고 있다. 이를 대변하는 것이 플루빅토의 매출 추이와 글로벌 기업들의 인수합병(M&A) 사례 증가세다. 방사성의약품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해 전립선암에만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PSMA 단백질을 타깃, 암세포를 파괴하는 표적치료제다. 엄민용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ADC 다음은 방사성의약품이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빅파마들의 방사성동위원소 치료제 기업 인수는 무서울 정도"라면서 "플루빅토 매출 전망은 마치 초기 엔허투 ADC를 보는 듯하다. 빅파마들은 ADC를 마련해놨고, 그다음은 방사성의약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퓨처캠 FC705는 국내와 미국에서 임상 2상을 진행 중이고, 올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글로벌 혁신 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 품목으로 지정됐다. 임상 3상 후 빠른 허가 및 출시가 가능하다. FC705 국내 임상 2상은 20명의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고, 이 중 16명이 투약을 마쳤다. 나머지 4명 환자 모두 투약을 마치는 시점은 빠르면 8월 정도로 데이터 추출까지 약 3개월 기간을 고려하면 올해 연말 국내 임상 2상 결과가 나오게 된다.

●큐로셀 (+4.63%)(3778K)

[큐로셀, CAR-T 치료제 '안발셀' 임상 2상 결과 67% 완전관해](#)

수령한 CSR에는 지난 3월 공시된 톱라인(Topline) 유효성 결과에 추가로 안전성 결과가 수록됐다. 주요 내용인 최종 유효성은 지난 3월 공시한 톱라인 결과와 동일했다. 임상 2상시험 유효성 분석 대상자 73명 중 안발셀 투여 후 암세포가 모두 사라진 완전관해에 도달한 비율(CRR)은 67.1%였다. 임상시험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일차 평가변수인 객관적반응률(ORR)은 75.3%이었으며, 최종 결과는 임상시험 설계 당시 가정했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 이번 CSR에서는 안발셀의 최종 안전성 데이터

가 최초로 확인됐다. 임상 2상에서 관찰된 3등급 이상의 사이토카인방출증후군(이하 'CRS')은 8.9%, 3등급 이상의 신경독성(이하 'NE')는 3.8%였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CAR-T 치료제 '김리아'의 3등급 이상 CRS와 NE 발생률은 각각 23%와 11%로 알려져 있다.

●블루엠텍 (+12.60%)(2308K)

[\[단독\] "약 배송 규제 풀어야"...의사들, 1년 만에 달라졌다](#)

비대면 진료와 함께 의약품 배송을 경험한 약사 10명 중 6명이 약 배송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 등 직역 단체들이 약 배송에 강경하게 반대하는 것과는 다른 현장의 목소리가 확인된 셈이다.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 의사 10명 중 7명도 현재 대면 수령으로 묶여 있는 약 배송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환자도 약 배송에 긍정적이었다. 방문 수령과 약 배송을 모두 경험한 환자의 83.7%는 약 배송에 더 만족했다. 92.7%는 약 배송이 허용된다면 비대면 진료를 더 자주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4.03.19\)\[특징주\]블루엠텍, 비대면 진료 필수 약배송 허용..여당 총선 정책 공약 진행!](#)

블루엠텍은 비대면 진료에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는 전문의약품 온라인 플랫폼, 전문의약품 통합검색시스템, 제약사와 병원 간 직거래 시스템 등의 플랫폼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가 운영 중인 비대면 의약품배송 플랫폼 '블루팜코리아'에선 의약품, 의약외품, 소모품 등 5만여종을 다루고 있다. 가입 의사 회원 수만 2만5000명에 달한다.

< 삼성 / 반디플 >

●네패스아크 (+8.75%)(4222K)

[\[특징주\] 네패스아크, 엔비디아 FOPLP 기술 도입 검토... 계열사 기술 상용화 부각](#)

전일 대만 현지 매체 디지털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TSMC의 패키징 공급 제약에 맞춰 서버용 인공지능 반도체에 FOPLP 기술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TSMC는 올해 CoWoS 공급량 두배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같은 패키징 품귀 현상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면서 생산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FOPLP 공정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네패스아크 계열사인 네패스라웨는 2021년 하반기 FOPLP 공정으로 패키징된 제품의 테스트를 시작하면서 상용화에 성공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주 고객사로 두고 있어 매출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피에스케이홀딩스 (+5.78%)(391K)

[피에스케이홀딩스, 마이크론에 HBM 양산용 리플로우 장비 공급](#)

업계에 따르면 피에스케이홀딩스가 지난 1분기 마이크론에 리플로우 장비를 소량 공급했다. 이 장비들은 대만 지역에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마이크론의 평가에 따라 하반기 추가 공급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피에스케이홀딩스는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HBM 양산용 리플로우 장비와 디스크롬 장비를 공급 중이다. 이번에 마이크론에 장비를 공급하게 되면서, 국내 장비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HBM용 장비를 D램 3사에 공급하게 됐다.

●유니트론텍 (+3.15%)(5665K)

[\[특징주\] 유니트론텍, 차기 메모리 소자 '강유전체' 이론 입증... 관련 메모리 반도체 판매 부각](#)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물리학과 양용수 교수 연구팀은 포항공대, 서울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미국 로런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아칸소대 연구팀과의 국제협력 연구를 통해 강유전체 내부 3차원 소용돌이 형태 분극 분포를 실험적으로 처음 증명했다고 밝혔다.이 같은 소식에 강유전체 메모리(FRAM)를 일본 후지쯔에서 수입·판매하고 있는 유니트론텍이 주목받고 있다. 강유전체 메모리는 DRAM(디램)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플래시 메모리 대비 10배 이상의 빠른 속도로 정보 처리를 할 수 있어 차기 메모리 소자로 평가받고 있다.

●태성 (+25.18%)(35097K)

[\(24.05.03\)\[특징주\] 태성, '애플 AI 발표 예고' 애플향 AI 서버 PCB 설비 공급 부](#)

[\(24.05.29\)태성, 국내 첫 '복합동박' 설비 "배터리 원가 30% 절감"](#)

[\[기업탐방\]PCB에 복합동박까지...올해 성장 자신하는 태성](#)

태성은 중국 배터리업체의 요청을 받아 2022년부터 복합동박 동도금 설비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원래 주력 사업은 인쇄회로기판(PCB) 설비 제조다. 이차전지 분야에 뛰어들어 본 경험도 보탬이 됐다. 현재 제품 샘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샘플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올해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중학 대표는 "현재 중국 쪽과 납품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본 기업과도 미팅하기 시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다른 업체들과의 경쟁에서도 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김 대표는 "다른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경우 구멍이 뚫리는 등의 불량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등 불량률이 높다"고 말했다.

●코스텍시스 (+15.75%)(3316K) / RF머트리얼즈 (+13.80%)(1608K)

[특징주]코스텍시스, 차세대 전력 SiC반도체, 미국글로벌 기업 양산권 통과 소식에↑

코스텍시스는 오는 31일 국내 주요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한다. 이번 IR에서 코스텍시스는 SiC전력 반도체 스페이서의 사업 진행 현황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SiC전력 반도체 스페이서가 미국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양산권을 통과했다"라며 "다른 고객사들의 쿼 친척사항을 설명하고 향후 실적 전망과 캐파 증설에 대해 언급하겠다"고 밝혔다.

●삼성공조 (+7.68%)(13805K)

삼성공조 주가 장중 21%대 급등 52주 신고가, AI열기 속 열관리기술 조명

삼성공조가 보유한 HVAC 기술은 자동차용이다. 또한 회사명에 '삼성(영문명으로도 Samsung)'이 들어가 있으나 삼성그룹과는 관계가 없는 회사다. 김태영 기자

●3S (+6.30%)(51340K)

(24.05.29)[특징주] 3S, 삼성·LG 520조 냉난방공조 시장 미래먹거리 낙점... 냉난방 측정장비 공급사 수혜↑

3S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칼로리메타, 환경구현장치 등을 주력제품으로 생산하며 삼성전자, LG전자, 대유위니아, 한온시스템 등을 비롯한 국내외 공조기기 제조업체와 대학교, 국립연구소 등에 납품하고 있다. 특히 칼로리메타는 냉난방 능력의 측정 및 실내외 기기 조합의 적합성, 내구성, 실용성을 측정하는 장비로, 그간의 칼로리메타는 수입 의존 품목이었으나 3S의 첨단 기술력으로 국산화에 성공했다.

< 이차전지 >

●이브이첨단소재 (+26.29%)(22990K) / 이수스페셜티케미컬 (+4.40%)(1379K)

EV첨단소재 투자사, 佛 슈나이더와 배터리 생산 최적화 '맞손'

이브이첨단소재는 자사가 투자한 대만 전고체 배터리 업체 '프로로지움 테크놀로지(ProLogium Technology)'가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배터리 생산 최적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프로로지움이 프랑스에 짓게 될 공장은 대만에 있는 40MWh 규모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공장 외에 첫 해외 생산거점으로 건설에 52억유로(약 7조 5000억원)를 투자하게 된다. 2026년 말부터 가동을 시작해 2031년까지 증설을 거쳐 연간 약 60GWh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며 이는 연간 약 75만 대의 차량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생산 규모다. 국내에서 최초로 투자했던 이브이첨단소재는 2021년 7월에 2차전지 미래먹거리 확보 전략으로 850만달러를 투자하며 발빠른 대응에 나선 바 있다.

●대주전자재료 (+14.00%)(2214K)

대주전자재료, 테슬라 2170 배터리 개선 착수... 수혜 기대감↑

테슬라는 올해 말 업그레이드된 2170 배터리를 선보이기 위해 협력사와 제품 출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형 2170 배터리에서는 한국산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주전자재료가 주목받은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는 기존 2170 배터리에 중국산 음극재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대주전자재료는 지난 2019년부터 글로벌 전기차 제조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 증설을 통한 생산능력(CAPA) 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고객사는 LG에너지솔루션이며 포르쉐 타이칸, 아우디 이트론 GT 등의 차량에 음극재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 개별주 >

●카티스 (+29.99%)(11941K)

(24.01.30)'스펙 합병' 카티스, 실적·합병 구조 '눈길'

카티스는 지난 1994년 설립된 씨큐어테크의 후신이다. 보안대상 공간에서 이동체(사람·로봇 등)의 상태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처리하는 공간인지 보안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인천공항 내 통합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발전소와 철도 등 국가기반산업(SOC) 중심 사업을 전개한 뒤 2010년 데이터센터 등 민간부문에 진출했다. 현재 사업 부문은 ▲산업인프라 보안플랫폼 ▲PIDS(Perimeter Intrusion Detection System) 시스템 ▲기술서비스로 나뉜다. 산업인프라 보안플랫폼 부문은 공항 등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처리·제어하는 소프트웨어·하드웨어를 공급한다. PIDS 시스템 부문은 인프라를 경계를 감지·제어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기술서비스는 보안기술과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형성그룹 (+29.72%)(30916K) / 오가닉티코스메틱 (+29.46%)(258368K)

●**키다리스튜디오 (+11.15%)(7922K) / 엔비티 (+10.90%)(1798K)**

[\[특징주\]키다리스튜디오 등 웹툰주 강세...네이버웹툰 美 상장 순항소식 영향](#)

네이버웹툰은 오는 6월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다. 최근 네이버의 '라인야후' 이슈에도 불구하고 기업공개(IPO)는 순항하고 있다. 현재 골드만삭스와 모간스탠리를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고 상장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에 따라 과거 쿠팡 사례처럼 나스닥이 아닌 뉴욕증권거래소(NYSE)로 상장 마켓을 변경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은행 (+10.61%)(17760K)**

[\(24.05.29\)美 미니애 연은 총재 "금리인상 배제 안 해"](#)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2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금리인상을 공식적으로 배제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금리를 올릴 확률은 상당히 낮지만 지금 시점에서 논의 대상에서 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بلوم버그와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카시카리 총재는 이날 CNBC 인터뷰에도 물가 상승세가 더 둔화하지 않는다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SK (+9.26%)(1178K)**

[법원 "SK에 노소영·노태우 기여 인정...1조 3천808억 재산분할"](#)

["최태원, 노소영에 1.3조 재산분할"...SK,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주가 9%↑](#)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LS에코에너지 (+4.85%)(8585K)**

[LS에코에너지 이상호 대표, "해저·희토류로 2030년 매출 1.8조"](#)

LS에코에너지는 전력, 통신 케이블 사업을 확대하고 해저 케이블과 희토류 영구자석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이 대표는 "향후 15년 이상 전세계적으로 대규모 전력 수요가 지속될 것"이라며 "전선 사업 확대와 희토류 영구자석 사업을 추진에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없는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출은 지난해 7000억원에서 2030년 1조8000억원으로 2.5배 성장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LS에코에너지는 기존 전력·통신 케이블 사업과 관련해 모회사인 LS전선의 기술 협력과 거점인 베트남의 노동력을 활용한 원가 경쟁력으로 수출 지역을 유럽과 북미로 넓힐 방침이다. LS에코에너지는 30년간 베트남에서 전력 케이블 분야에서 1위를 유지해 왔다.특히 LS에코에너지는 신사업인 해저케이블을 아시아와, 미국, 유럽 등 시장으로 확대한다.

●**라운피플 (+3.87%)(1582K)**

[티디지 "마이크로소프트 'Copilot for Microsoft 365' 국내 공급"](#)

라운피플의 자회사인 티디지(TDG)가 마이크로소프트 Copilot for Microsoft 365를 국내시장에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티디지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점프스타트(Jumpstart) 공식 파트너로 국내에 코파일럿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클라우드 전문기업이다.

●**아나패스 (+1.75%)(1394K)**

[\[특징주\] 아나패스, 美 인텔 AI PC 공식파트너 선정...글로벌 PC교체 수요증가 수혜↑](#)

아나패스는 엄격한 하드웨어 공급 기준을 통과한 업체에게만 부여되는 인텔의 'AI PC IHV 파트너'는 일종의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인텔 측에 최신 기술과 하드웨어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은 셈이다.

●**DXVX (-30.00%)(5116K)**

[DXVX, 503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확보를 위해 503억 5000만원 규모의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9일 공시했다. 발행되는 신주는 1900만주다. 신주발행가액(예정)은 주당 2650원이고,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8월9일이다.

[DXVX, 한미 계열사 되나...한미사이언스 '유증 참여' 가능성 ↑](#)

임 대표는 이번 유증으로 생기는 신주인수권증서를 특수관계법인에 매각하고, 해당특수관계법인이 청약에 100%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임 대표 입장에서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매각해 자금을 마련하면서도 지배력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인 셈이다.DXVX의 신주인수권을 매수할 곳으로는 한미사이언스가 유력하다. 임 대표가 지분을 공시하고 있는 상장사는 현재 코스피의 한미사이언스와 코스닥의 DXVX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2024.05.30.(목) 한 장으로 보는 이브닝

▼ 코스피 2,635.44 (-1.56%)

▼ 코스닥 831.99 (-0.77%)

"코스피 이틀 연속 1%대 급락...
화장품·바이오 등 개별주 장세"

미용/화장품

선진뷰티사이언스 (+15.23%)
아모레G (+7.40%)
한국화장품제조 (+10.66%)
코스메카코리아 (+10.66%)
잉글우드랩 (+6.33%)
원익 (+8.67%)

BIO/의료시

제이엘케이 (+19.99%)
강스템바이오텍 (+19.41%)
퀀타매트릭스 (+15.22%)
퓨처캠 (+7.87%)
큐로셀 (+4.63%)
블루엠텍 (+12.60%)

삼성/반디플

네패스아크 (+8.75%)
피에스케이홀딩스 (+5.78%)
유니트론텍 (+3.15%)
태성 (+25.18%)
코스텍시스 (+15.75%)
RF머트리얼즈 (+13.80%)
삼성공조 (+7.68%)
3S (+6.30%)

이차전지

이브이첨단소재 (+26.29%)
이수스페셜티케미컬 (+4.40%)
대주전자재료 (+14.00%)

개별주

카티스 (+29.99%) ▲
형성그룹 (+29.72%) ▲
오가닉티코스메틱 (+29.46%) ▲
키다리스튜디오 (+11.15%)
엔비티 (+10.90%)
제주은행 (+10.61%)

SK (+9.26%)
LS에코에너지 (+4.85%)
라운피플 (+3.87%)
아나패스 (+1.75%)
DXVX (-30.00%) ▼

